

관리감독자 안전문화 인식이 재해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양형규, 신동일^{1,†}

한국산업안전기술단/명지대학교; ¹명지대학교

(dongil@mju.ac.kr[†])

2020년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의 전면 개정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는 법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자체선임(시행 2021.10.21.)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관리감독자 안전 문화 인식 개선방안을 목표로 한다. 연구에 있어 현 관리감독자 제도와 관리감독자의 안전문화 인식이 재해 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업종, 사업장 규모, 나이, 성별, 관리감독자 선임기간 등 17개 항목(93문항)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SPSS를 통해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자국의 관리감독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 재해예방활동 수준을 알게 됨으로써 점점 강화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함께 움직이는 안전 조직을 일궈내, 안전관리에 있어 기존 대비 산재예방감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